



제목	샤나메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아시아클래식
발행일	2014. 7. 7.
저자	아불 카시무 피르다우시 헬렌 짐머른 영역, 부희령 옮김
출판국가	한국
페이지수	336
ISBN 또는 ISSN	979-1156620235

**내용 요약**

페르시아의 시인 피르도시(Abul Qasim Firdosi, 935경-1021경)가 쓴 『샤나메』는 6만여 행의 장편 서사시이다. 제목을 번역하면 ‘제왕열전(諸王烈傳)’, 즉 왕들의 이야기가 되는데, 피르도시는 『샤나메』에서 이란 민족의 역사와 역사의 중심에서 있던 왕들,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

『샤나메』에서는 2500여 년의 이란 역사 가운데 창건부터 7세기 이슬람의 침입으로 페르시아가 멸망하기까지의 약 1200년을 다룬다. 장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4왕조 50여 명의 왕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인간의 탐욕과 파멸, 생명과 시련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수많은 영웅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루스탐’이다. 샤(왕)로부터 영토를 하사받고, 전쟁 시 군대를 징집해 지휘하며 샤에게 충성을 다하는 루스탐은 샤와 나라가 위협에 처할 때마다 단숨에 달려가 적들을 물리치는데, 그가 경험하는 모험, 사랑, 고통, 슬픔, 생명, 죽음의 행로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사의 단면을 공유하게 된다.

『샤나메』는 19세기 초부터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는데, 한국어 번역본의 저본이 된 것은 헬렌 짐머른의 영어 번역본이다. 니체의 친구이기도 한 헬렌 짐머른은 작가이자 번역가로 활동하며 예술·역사·철학·소설·드라마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저술과 번역의 재능을 꽃피웠다.